

개화기 소설과 신문 사설에 나타난 담화방식

음영철^o

^{*o}삼육대학교 교양학부

e-mail : sangoma@syu.ac.kr^o

The Ways of Discourses in the Novels and Editorials During the Period of Korean Enlightenment

Yeong-Cheol Eum^o

^{*o}Division of General Studies, Sahmyook University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개화기 소설과 신문사설에 나타난 담화방식을 연구한 것이다. 개화기 소설과 신문 사설은 당시 대표적인 담론 매체였다.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담화방식은 개화기소설의 경우 대화체·토론체·연설체 담화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문 사설이 갖고 있는 한계인 설명·추상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당대의 시대정신을 잘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키워드: 개화기(the Period of Korean Enlightenment), 신문 사설(Editorials), 담화(Discourses)

I. Introduction

개화기 공간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서구 문화의 유입에 따른 근대화 지향이다. 둘째,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선 국권 수호가 그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개화기 소설은 다양한 양식을 통해 담아낸다. 에칸대 역사 및 전기류·토론체 소설·정치소설·신소설·번안소설·의인체 소설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개화기 소설은 풍자소설·사실소설·골계소설·윤리소설·탐정소설·가정소설·과학소설 등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개화기의 소설 공간은 다양한 양식의 소설들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 소설이 이처럼 다양한 양식으로 출현한 이유는 국권회복 및 근대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담아내야하는 목적문학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른바 개화기 신문 사설과 개화기 소설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 신문 사설이 갖는 계몽성과 개화기 소설의 목적성은 문예미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상충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개화기에 나타난 다양한 담화 양식 중에서 토론체 양식에 주목하여 개화기 소설의 담화방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1905년에서 1906년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고, 1910년을 고비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토론체 양식은 당시의 신문 사설과 상충관계를 이룬다. 즉 당시의 신문 논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배우기 위해 고안된 장치가 바로 토론체로, 이는 신문논설이 개화사상을 추상적인 언어로 국민을 계몽·설득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고안된 신문의 토론체 양식은 인간의 감정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계몽성을 갖추되 논설적 설명에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술적 형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토론체 양식은 ‘문답’, ‘회의록’의 형태로 드러나며 대체로 힘있는 자와 현실에서 부조리한 세력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담화 양식은 찬반양론이 분명한 이슈들의 원인, 배경, 해결방안 등을 담고 있다.

2. Discourse Style of Discussion Style Writing

첫째,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여 문답 혹은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체 계열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대한매일신보> 시사문답란에 게재된 <소경과 앓은뱅이 문답>을 들 수 있다.

“일전에 어떠한 소경 하나가 막대를 두덕거리고 모치 망건 가게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망건일하는 앓은뱅이가 그 소경을 불러 가로되, ”여보게 그동안 어찌하여 오래 만나지 못하였나?“ 소경이 대답하되, ”자연 그렇게 되었네마는 그동안 술이나 잘 먹었나?“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4)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소경과 앓은뱅이 사이에서 오고 간 순전한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소경과 앓은뱅이를 통해 새로운

II. The Main Subjects

1. Corresponding Structure of Discussion Style Writing to Editorials

토론체 양식이란 소설의 서사구조가 토론형식으로 된 것으로 두 사람 이상의 등장인물이 대화, 토론과 같은 각종 담화방식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시킨 개화기 의 문학양식을 일컫는다[1]. 이 양식은

세계를 알리고 하지 않는 이른바 수구파로 보았으며, 공자나 맹자를 찾으려서 도학군자언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얇은뱀이라 하였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개화기 시대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관료의 부패, 매관매직, 사대주의, 민족 단결의 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둘째,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토론체 계열로 이해조의 <자유종>(1911)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은 주제면에서 볼 때 신소설 중에서 가장 정치성이 강한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정치소설이 어떻게 풍속소설로 타락해 갔는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 소설은 다른 토론체 작품에 비해서 토론다운 토론이 담겨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대한의 정계가 부패함도 학문 없는 연구요, 민족의 부패함도 학문 없는 연구요, 우리 여자도 학문 없는 연구로 기천년 금수 대우를 받았으니, 우리나라에도 제일 급한 것이 학문이요, 우리 여자 사회도 제일 급한 것이 학문인즉.....”(이혜조, <자유종>, 창작과 비평사, 1996)

인용문은 개화기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부패문제와 여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당시 신문 사설에서 다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한문폐지문제, 자녀 교육 문제, 국가의 자주독립, 미신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이 여성임을 감안한 여권존중의 문제는 당시 사회를 개혁할 주체가 여성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연설체 계열로 안국선의 <금수회의록>(1908)이 많이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입몽과 각몽 형식의 몽유록계 소설이면서 동물우화에 의거하고 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을 통해 인간 세계를 풍자한 알레고리 형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슬프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거꾸로 되고 충신과 역적이 바뀌었다. 이같이 천리에 어긋나고 덕의가 없어서 더럽고 어둡고 어리석고, 악독하여 금수(禽獸)만도 못한 이 세상을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안국선 <금수회의록>(권영민 엮음, 『한국현대문학대계 3』, 민음사, 1994)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화자는 꿈속에 들면서 금수들이 개화하는 연설회를 지켜보게 된다. 화자는 까마귀·여우·개구리를 통해 자신들의 행위와 당시 인간군상들을 비교하면서 인간들이 동물들보다 못한 동물로 격하시킨다. 우화 형식을 빌어 당대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한 것이다.

3. Discourse Style of Editorials

신문사설 형식에서 문단체(토론체·월체) 형식이 파생되어 나타난 시기는 1905년 전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계몽주의가 지향한 정치성에 있다. 개화공간은 일현왕국의 정부조직과 제도로서의 근대를 수렴하고자 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담화방식은 신문사설의 양식이다. 이 시기는 신문매체의 보급이 늘어나고, 계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문 사설의 등장했다. 30여 년에 걸친 우리의 개화공간은 다양한 담화방식을 통해 풍속을 교정하였으며, 시대의 부조리를 담아내었다. 신문사설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아내는데 적합한 계몽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지식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방식이 설명인데, 신문사설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하였던 것이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개화기 소설과 신문사설에 나타난 담화방식을 연구한 것이다.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대화체·토론체·연설체 담화방식은 신문 사설이 갖고 있는 한계인 설명·추상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당대의 시대정신을 잘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References

- [1] A Study of Korean Modern Literary Style by Kim Yoon-sik published by Asia publishing company, p.25, 1990.